

# 日本での交換留学生活について

이화여자대학교

김예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김예담입니다. 처음 교환학생을 신청했을 때는 코로나가 진정되어 일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한국에서 한 학기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오차대의 수업은 이대의 수업과 전혀 다른 수업방식과 분위기였습니다. 이대에서의 수업은 최소 30명, 많게는 200명까지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차대에서 들었던 수업은 6명에서 많아도 20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을 들어 토론이나 교수님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등의 수업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런 수업방식을 대학시절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업에서 내 의견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니 지금은 좀 더 자신있게 저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학의 전공 수업을 두 개 들었는데 그 중 사회정책연습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그날의 교재를 정리해 30분 정도로 발표를 하고 논점을 제시하면 40분 정도를 팀을 이뤄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빈곤에 대한 수업이라서 어려운 단어도 많고 모국어로 토론하더라도 어렵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일본 사회 위주의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같은 팀이 된 학생들이 쉽게 풀어 설명해주고 본인들도 어려운 내용인데 유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이 대단하다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며 여러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주어 한 학기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환학생을 와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면 일본인 학생들도 그것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하고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을 이야기하며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본어 수업 중에는 하기와라 선생님의 일본사정연습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숙제가 많고 가장 말을 많이 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 언제 나의 이름을 불러 질문할 지 몰라 항상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었으나 한 학기 공부를 하니 가장 뿌듯하고 배운 것이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대학에서는 발표를 할 때 항상 자료조사나 글쓰기 같은 역할을 맡아 ppt제작이나 발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기와라 선생님의 수업에서 처음으로 직접 ppt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또 일본어 수업만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한 영어 수업에서는 일본인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다른 학생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우연히 한 명의 학생과 자주 팀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과 수업이 아니라 친구와 노는 것처럼 항상 즐겁게 대화했고 마지막 수업 날 서로 라인 아이디를 교환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후회없이 마친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지는 못했지만 일본인 학생들과 소통하며 언어도 많이 늘고 일본의 문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